

순천시 주요 공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10개 분야 26명 자문단 위촉
신청서 건립·국가정원 등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
기본계획 수립·조례 제정 나서



순천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수행을 위해 꾸려진 자문단은 위촉식과 함께 자문회의를 갖고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대상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순천시 제공>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프리(무장애) 개념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다. 나이, 신체 크기, 장애 등과 관계없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실천하는 것으로 민선7기 허석 순천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순천시가 신청서와 국가정원, 시민로 개선 등 주요공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배리어프리(무장애)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건축, 도시, 교통, 환경, 문화, 디자인 등 10개 분야 26명의 순천 유니버설 디자인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된 유니버설 디자인 자문단은 순천시 사업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자문과 각종 공사의 설계·시공 단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 자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위촉식에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차례의 자문회의와 현장 답사를 통해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제안, 적용 방안 등에 대한 토론과

자문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민로 개선 공사'와 '순천시 신청서 건립' 및 '순천만 국가정원' 등에 대한 설명과 현장답사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집중 수렴했다.

건축, 시설 등 물리적인 영역을 비롯한 사람의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앞으로 순천시가 지향해야 할 다양한 분야의 유니

버설 디자인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자문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시민 대상 포럼 등 시민참여 방안도 모색해서 순천 시민과 함께 모두가 편하게 생활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현재와 미래 담은 슬로건 공모

21일까지...시 승격 70주년 맞아 통합브랜드 개발

순천시가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통합 도시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올해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시민의 견수령과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슬로건 공모는 생애와 정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한 통합 브랜드 개발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슬로건은 500자 이내로 시의 정체성, 슬로건 등을 통해 밝은 '생태, 살고 싶은, 여유'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순천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만들면

된다. 개인당 2개의 슬로건까지 출품이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밴드, 페이스북, 팟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평가해 대상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3명에게 20만원, 장려상 14명에게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이라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담아 시민들의 자긍심과 세계적 생태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브랜드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전에 생태도시 순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정원 가꾸는 법 배우요"

순천 생활공공 공유센터

'가드닝 공작교실' 눈길

순천시 생활공공 공유센터가 정원 가꾸는 법을 배우기 위한 '가드닝 공작교실'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0일 열린 공작교실에는 시민 15명이 참가해 정원 가꾸기에 대한 이론수업을 듣고 화분갈이 등 실습을 진행했다.

생활공공 공유센터는 앞서 5월 25일에는 페인팅 공작교실을 개최해 롤러로 페인트 칠하기를 실습하고 독거노인 집수리(대문 도색) 봉사활동도 펼쳤다.

생활공공 공유센터는 오는 27일에는 목재를 이용해 공작품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제근 순천시 자치혁신과장은 "여가를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하려는 시민들의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공작교실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시민협력센터(삼산로 157)에 문을 연 생활공공 공유센터는 공공대여와 공작교실, 집수리 자원봉사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청렴+문화공연...동부권 5개 시·군 연합 청렴 콘서트 인기

500여명 참석 실천 다짐

청렴의 가치와 문화공연을 접목한 '전남 동부권 5개 시·군 연합 청렴 콘서트'가 지난 4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사진>

순천시에 따르면 콘서트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콘서트팀을 초청해 순천, 광양, 구례, 보성군, 고흥군 등 전남 동부권 지역 5개 시·군과 순천교육지원청,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 소속 공직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별주부전을 현대적 청렴의미로 재해석한 판소리 마당이 인기를 끌었다.

또 공직자들의 허위의식을 상향극으로 표현한 연극공연,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콘서트에 앞서 순천시와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는 청렴한 공직 및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하고 친절할 민원응대',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행정', '부패·청탁·갑질 없는 직장'을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 의미의 '3대 청렴 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병주 순천시 부시장은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자긍심이며, 시민들의 행복이다"면서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우리부터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하자"고 말했다.

청렴 콘서트를 관람한 순천시 직원들은 "기존 주입식 직장교육과 달리 문화공연을 통해 쉽게 청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공정하고 정직한 공직자의 업무 처리 중요성을 깨달았고 새롭게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6월 순천 대학로 끼와 열정이 넘친다

치맥파티·2080버스킹 등
청년상인들 다양한 행사

순천 대학로에는 젊은이들의 끼와 열정이 넘친다.

순천시는 최근 대학로 청년 상인 등으로 구성된 순천대학로 협의회 회의를 열어 6월 중 행사 계획을 확정했다.

8일에는 순천대학로 대표 행사인 '고고장(만나고 즐기고 또보장)'에서 치맥파티를 열고, 같은 시간에 '입체낭독극 볼륨'과 '7080버스킹'의 공연으로 순천대학로 저녁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고고장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게임, 이벤트 등을 통해 치킨 교환권을 지

급하며 당일 텀블러 지참 시 맥주를 무료로 제공한다.

14일은 순천 청년단체와 동아리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민과 이어주는 대학로 페스티벌 '청년-있다'가 8개 체험부스와 탁구대회를 진행한다.

22일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이동 맨몸운동 경기를 벌이는 '재활프로젝트'와 '날 위한 선물만들기', '특별한 선물 만들기', '청년재능나눔프리마켓', '사진인화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26일에는 토크공연 위주의 '소리안골목', '나만의 소화행 찾기' 체험부스와 향수만들기 체험인 '향순'이 진행된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 숙박 허용 업소 100만원 지원

순천시가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숙박을 허용하는 업소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시의 이번 시책은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거나 반려동물만 집에 놔두고 여행 가기에는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은 사료 등 소모품을 제외한 반려동물 격리시설이나 배변판, 놀이터, 수영장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규모 시

설비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올해 예산 2000만원을 책정해 숙박업소 20여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간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희망 업소는 오는 10일까지 순천시 동물자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순천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해 숙박할 수 있는 업소는 현재 12곳이다. 전

국에는 6만여개 숙박시설 가운데 600여곳이 반려동물과 숙박할 수 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1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17 12 point

1 3 0 7 5 8 4 9 2
116 10 point

2 4 6 3 7 1 2 8 0
115 8 point

4 6 2 8 1 0 9 7 3
113 6 point

2 7 0 2 1 4 2 0 2
112 5 point

3 7 2 7 9 0 0 0 0
11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1* 3 point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